

물이 盛하여져서 藝術의 黃金時代를 이룬 新羅人은 三國을 統一한 金 眞信將軍을 英雄中の 英雄으로 追尊하였음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四十二代 眞德王은 公의 偉大한 功勞를 더욱 追尊하여 眞德王으로 追封함과 同時에 封土를 整備하고 護石을 設置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十二支 神像彫刻手法이 또한 美術史的 見地에서 初期의 것이 아니고 이 時代것으로 推定됨을 보아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鵝溪影幀觀記

孟 仁 在

鵝溪 李山海의 影幀에 關해 最近 世間에서는 그 後孫들을 中心으로 매우 意義있는 物議를 일으킨 일이 있다.

이 影幀은 從來 德壽宮美術館에 收藏된 一幅만이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收藏當時의 記錄에 의하여 崔鳴吉의 影幀으로 傳稱되어 오다가 一九六八年 度 四·五月 美術館의 省像高特別展을 觀覽한 鵝溪의 後孫이 鄉里 禮山에 現存하는 다른 二幅의 鵝溪影幀과 同一系本임에 着眼 아울러 鄉里의 二本을 紹介하여 崔鳴吉影幀이 誤傳된 것임을 主張하게 되었다.



(圖 1)

이 것으로서 지금까지 지 알려진 문제의 影幀은 모두 三幅이 되었고 그中 二幅의 現收藏者는 鵝溪의 後孫이며 그 所傳도 매우 明確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二

美術館本의 收藏記錄카아드는 매우 簡單하다.

「番號 五七二一、

筆者 未詳 崔鳴吉肖像 畫、落款無、印章 無、年代 未詳、購入年月日 大正三年



(圖 2)

九月三日、納入人 李性燾、價格 四〇圓 昭和 一〇、三・一六 下調査(圓印)이 記錄으로 이루어 보던 崔鳴吉 傳稱은 納入人 李性燾의 主張으로 부터 비롯된 듯 생각되는데 納入年이 一九一四年(大正三年)으로서 合邦 直後의 일이므로 多分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또 鄉里 後孫들의 回顧談으로도 二幅中 一幅의 逸失을 確言함으로 納入人 李性燾이 함부로 僞稱했을 可能性도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鄉里에서의 傳聞으로는 元來 二幅을 改竊하여 分藏했던 것으로서 一幅을 倭政期에 保寧에서 紛失한 후 行方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二幅의 摹本中 一幅은 문제가 된 이 美術館本이고 (圖 3) 이와 똑같은 다른 한幅은 禮山郡 大述面 上頂里 三三四 李昇馥氏宅에 收藏되어 있고 (圖 2) 이 兩者보다 오랜 古本 一幅이 大述面 方山里 一六九 李翰馥氏宅 (宗家)에 收藏되어 있다. (圖 1) 後者 李翰馥家藏 古本에는 附屬本이었을 一幅의 畫像讚이 李昇馥氏宅에 傳來하나 古本의 摹本인 前三者는 아무런 典據資料가 없다. 李昇馥氏談으로는 前二者가 癸巳·甲午年의 摹本으로 傳承된다 하니 高宗 三〇年(一八九三)——三一年(一八九四)間의 改竊로 一旦 推定되나 畫面의 狀態나 技法으로 미루어서도 그 以上 遡及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三

實際로 美術館本과 李昇馥家藏本(모두 絹本着彩)은 畫面의 크기가 똑



(圖 3)

같이 八三×一六二
cm이며 衣冠調度の
形式이나 畫面構成
에 있어 아무 差異
가 없음을 뿐 아니라
各部의 構成比例나
唯一한 露出部인 顔
部의 運筆 筆寫技法
및 彩色이 모두 同

一한 것이어서 그것이 同一畫員의 손에 의하여 模寫된 것이 아닐 수 없
을 것이라는 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靑·藍 主調의 衣冠이 同一 裝飾雲
文의 되풀이로 끝나는 狀態는 非但 여기서만 보는 것은 아니며 衣飾의
屈折에 따른 現實變化가 그대로 寫出되지 않고 劃一的으로 便化省略되
는 傾向도 또한 그러하다.

여기서 重要한 部分은 顔部와 동근 어깨를 形成하는 輪廓의 設定인 바
兩本은 毫髮描出에서 僅少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음을 뿐이고 이 人力限界
的 表現을 除外한 모든 點은 精巧하게 相似하다.

이 兩摹本이 前出 李翰馥家藏 古本과 다른 點으로서는 改摹라고 하는
人力과 時代를 달리한 어쩔 수 없는 微妙한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도 있
으나 故意的인 外的 變形을 가져온 部分도 있다.

改摹本의 顔皴는 陰影表現에 注力하여 細線의 密集堆積寫出으로서 密度
있는 空間을 이루고 있으나 이 點 古本과는 어느 程度의 거리가 있고
朝鮮朝 後期以後 流入된 洋畫風의 表現이라 할 수 있다. 古本에서 注意
되는 點은 前記한 바 顔部 輪廓의 悠然함과 거기서 풍기는 品格 兩肩의
自然스럽고 餘裕있는 輪廓이다. 이 點 改摹本에서는 主角的이며 生硬하
고 일마간 促迫한 맛을 不可分 看取케 하여 畫風의 時代差를 實感케 한
다.

前記한 바 雪簑 南以恭의 畫像贊은 古本과는 別途로 李昇馥氏家로 移
藏되어 있다.

昔我
聖明后一言實贊柱石臣至論若曰言若不出口身若不勝衣者形容宛亮無
違也

若曰一團真安尺之氣渾是充積於中者評品氣像鑑所公也倚歎 孫綸之模
畫允矣知臣之莫如 先生德美之益粹茲可見後進荒翁又何敢贅於其餘百
歲之下誦王言而瞻 公像者就不仰一代的良之際念也

雪簑南以恭撰

南以恭은 明宗二〇(二五六五)—仁祖 一八(一六四〇)年間の 人物로
仁祖一五(一六三七)年에 吏判, 仁祖 一七(一六三九)에 大司憲, 工判을
歷任하였다.

이 古本이 鶴溪가 右議政이 된 一五八八年以後 그것도 아마 壬亂以後
의 製作으로서 一五九五年(鶴溪 五七歲)頃으로 본다면 雪簑 三〇歲時의
製作이 되므로 雪簑의 贊文은 年代上 無理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模畫」云云한 것이 不明確하기도 하나 壬亂後의 原本을 重摹하
였다 하더라도 不過二、三〇年差일 뿐 現在의 古本을 그대로 原本으로
看做해도 無妨할 듯하다.

四

李翰馥氏는 鶴溪의 直系宗孫으로서 古本 鶴溪影幀은 世傳家寶로 奉安
되어 왔으며 影幀을 내모실 때에도 傳來의 儀式을 固守하고 있다.

이 古本은 前當代의 趙末生이나 李恒福의 肖像과도 比肩될 作品이며 紗
帽을 길이 늘려 쓴 形式等은 그것을 추켜올려 쓴 後期의 것들과 뚜렷이
特色을 달리한다. 또 如上의 鶴溪鄉里에 있어 온 後孫들을 둘러싼 由來
로 보건대 崔鳴吉(宣祖一九, 一五八六—仁祖 二五, 一六四七)의 影幀
이란 所傳은 解消됨이 妥當한 것으로 생각된다.